

아홉명 작가들 아홉색깔 무등산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은 지역 예술가들에겐 빠지지 않는 작품 소재다. 언제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산이기도 하지만 질곡의 역사를 뚝뚝히 지켜봐온 산이라는 의

미도 적지 않다. 산을 오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듯 작가들이 무등산을 보는 시각도, 화폭에 담아내는 방식도 다양각색이다.

무등현대미술관이 내년 2월28일까지 마련한 '무등산, 광주를 품다'전도 무등산의 다양성을 직접 느끼고 예술적으로 접근해 무등산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시다.

이 때문에 지척에 있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산, 한번쯤 가봤던 산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만든 작품들도 아니다.

참여한 9명의 중진 여성 작가들은 지난 1월부터 무등산을 올랐다.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10차례에 이른다.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았고 전문해설사도 함께 동행했다. 1수원지와 편백숲을 둘러본 것을 시작으로 무등길 1길(시화마을~등촌마을 정자)을 시작으로 담양과 화순에 걸쳐 있는 무등길을 훑었다. 무등산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보는가 하면, 정상 개방일에도 무등산을 찾았고 워크숍도 열었다.

이렇게 둘러본 무등산을 9명의 조선대 미대 회화과 여성 선후배 작가들은 각자의 시각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았다. 윤은덕씨는 16세기 때와 현재 무등산의 감정을 '환생'이라는 작품에 녹여냈고 박수옥씨는 걸었던 길을 테마로 인생의 의미를 담은 '길잡이'라는 작품을 전시관 벽에 내걸었다. 김수옥씨는 담양·화순 등에서 무등



윤은덕작 '환생'

산 둘레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에 빛의 도시를 품은 무등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2012 무등-너울지는'이라는 설치 작품을 두번 구워낸 도자기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도 들었다. 강진희씨는 어머니 풀 같은 편안함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전시관 벽을 채웠다. 이외 명미희·이영민·김희정·이미경·김지현씨도 작품을 내놓았다.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진정한 가치를 지역민들이 공유하면서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면서 전시 의도를 밝혔다. 그는 10차례의 탐방과 2차례의 워크숍 뿐 아니라 오는 27일 '무등산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문의 062-223-667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현대미술관 내년 2월까지 '무등산, 광주를 품다'전

조선대 미대 선후배 작가들 매달 답사·워크숍 개최



김지현작 '산길 이야기'

미술관에서 보는 추억의 만화

롯데갤러리 22일부터 '유쾌한 미술전'

만화책을 볼 때면 엔지 마음이 급해졌다. 같은 책을 읽는데도, "그만 좀 봐라!"는 말이라도 들리는 듯 해 후딱 읽고 댔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예전엔 그랬다.

광주 롯데갤러리가 2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마련한 '명랑한 만화, 유쾌한 미술'전은 마음 풀이하며 숨겨놓고 왔던 추억 속 만화를 미술 전시로 만나는 기회다. 급하게 볼 필요도, 들릴까 몰래 볼 이유도 없다. 어린 시절, 추억 속 만화 주인공을 느긋하게 찾아보면서 만화를 담은 현대미술 작품을 즐기는 덩까지 누릴 수 있다.

'일상의 삶'을 소재로 웃음을 전달했던 '명랑만화'를 화두로 삼아 다양한 만화 원고와 현대미술작품 100여점이 전시관을 채운다.

박수동·신문수·윤승운·이정문의 만화 원고 전시관 한 칸을 차지한다. '로봇찌빠', '뽕뽕이서당', '오성과 함음', '고인물', '심술뽕' 등 옛 추억을 되짚는 재미가 쏠쏠한 만화 원고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배준성·김성재·여동헌·노준 등은 '아톰과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 등 만화 소재를 활용하거나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 속 그림들이 변하는 기법, 환상을 버무려 참신한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를 안겨준다. 문의 062-221-180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명환작 '당당토끼'



▲신문수 만화 '찌빠 우주여행'

희망 재능교실 페스티벌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이 뮤지컬로 탄생했다.

2012 희망 재능교실 페스티벌이 21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회적 기업 희망네트워크 광주와 (사)문화예술교육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올해 희망재능교실에서 공부한 350여명의 아이들이 6개월간 준비한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뮤지컬 '시간을 훔치는 마녀'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 희망 재능 페스티벌이 한창인 현장에 오즈의 사악한 서쪽 마녀가 나타나 세상의 시간을 빼앗아 개버리자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다. 그 사실을 안 도로서는 시간을 찾아오기 위해 마법의 구두를 신고 오즈로 날아간다.

한세대 뮤지컬학과 김규공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 로비에서는 늘레방 지역아동센터 등 6개 아동센터 아이들이 작업한 영상, 그림, 도자 등이 전시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 이야기

시립극단 송년공연 24~25일 남구문예회관

광주광역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송년공연을 준비했다.

24일(오후 7시), 25일(오후 5시)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두 편의 연극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공연작 '크리스마스에 삼십만원을 만날 확률'(이하 크리스마스)과 '아빠의 소꿉놀이'는 2011 서울신문과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동시에 당선된 오세혁 작가의 작품으로 부담없이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코믹 가족극이다. 오씨는 '크리스마스'를 직접 연출도 한다. '아빠의 소꿉놀이'는 시립극단 상임연출가인 김지현씨가 연출한다.

'아빠의 소꿉놀이'는 는 실제 가정들의 아내 속이기에 프로젝트이다. 초보 해고자 '구부정'이 놀이터에서 만난 해고 경력 1년차인 '대머리'를 만나 '회사에 다니는 척'의 비법을 전수받는다. 한쪽에서는 구부정의 아내가 대머리의 아내에게 남편의 연극에 '속아 주는' 비법을 전수받는다.

두 번째 무대 '크리스마스'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30만원 구하기 대작전이다. 크리스마스 전날을 배경으로 고시원에서 글을 쓰는 아들, 복덕방 사무실의 아버지, 김밥 가게의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30만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희철·정순기·정경아·유지영씨 등 광주 배우들은 '아빠의 소꿉놀이'에, 장항석·최현미·강동효씨 등 서울 지역 배우들은 '크리스마스'에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이 댄스를 만나 얼쑤~

'루트머지'·'댄스플로어' 22일 전통문화관서 공연

국악과 댄스가 만나는 흥겨운 무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2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무대에서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와 댄스팀 '댄스플로어'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첫 무대를 장식하는 '루트머지'는 '바람의 노래', '눈물이 별이 되어', '캐롤모음곡', '민요연곡', '미리내' 등을 한국 전통음악인 산조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가야금연주자 홍운진씨가 리더를 맡고 있는 루트머지는 피아노, 작곡, 콘트라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 연주자들이 함께 모인 퓨전 국악그룹으로 2011년 첫 번째 앨범 '話-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스트리트댄스(하우스, 힙합, 팝핑, 락킹)의 장을 넓혀 가고 있는 '댄스플로어팀'의 공연은 활기가 넘친다.

주세웅, 류상태 외에 필즈 왁(Feel Waack), 그레이트 팝퍼스(Great Poppers)가 출연해 다양한 스트리트 댄스를 즉석에서 선보이며, 체험마당도 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루트머지 공연 모습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월요일은 고객별-
 [맥주 or 소주 1병] or [와인 or 생맥주 1잔]씩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Be natural Be delicious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향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향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